



# 朝鮮後期 天才畫家

##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겸재(謙齋)에게 그림을 배우다 - 6

『고성읍지(高城邑誌)』 고성읍선생안(高城邑先生案)에 의하면 심정로는 숙종 38년 3월 19일에 도입하여 10월 7일에 재관별세(在官別世, 벼슬에 있다가 돌아감)했다 하고, 통천읍지『通川邑誌』 선생안에 의하면 심정구의 재임 사실이 확인되니, 쌍인암 모임은 숙종38년 3월 19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해 8월에 겸재는 금화현감인 사천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초청을 받아 사천의 부친 수암(樹庵) 이숙(李淩, 1647~1720)을 모시고 사천의 아우인 순암(順庵) 이병성(李秉成, 1675~1735)과 그들 모두의 벗인 국계(菊溪) 장응두(張應斗, 1670~1729)와 함께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 고성과 통천을 들러 이들 형제의 대접을 극진히 받는다. 우암학과의 동문사우들로 집안간의 세교(世交)가 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성군수 심정로는 겸재 일행이 다녀간 직후인 이해 초겨울 10월 7일에 급서했던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현재 6세 때였다.

현재가 7세 나던 해는 숙종 39년(1713)이라 즉위 40년을 경축하기 위해 4월 10일에 좌의정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어용도사도감도제조(御容圖寫圖鑑都提調)가 되고 공조판서 김진규(金鎭圭, 1658~1716) 등이 제 조가 되어 23세의 화공 진재해(秦再奚, 1691~1769)를 주관화사로 삼아 숙종의 어진을 그리는데 현재의 외종조부인 취은(醉隱) 정유승(鄭維升, 1660~1738)이 감조감(監造官)으로 차출된다. 정유승은 현재의 양 외숙인 정창동(鄭昌東, 1693~1764)의 생부로 이때 나이 54세였다.

이해 3월 30일에는 전년의 사은 겸 동지사 정사로 청나라에 사신 갔던 김창집 일행이 귀국해서 복명(復命)하는데 강희(康熙)황제가 특별히 하사한『전당시(全唐詩)』, 『고문연감(古文淵鑑)』, 패문운부(佩文韻府) 등 3백여 본의 신간 서적을 바치고 정황을 다음과 같이 아뢴다.

‘청나라 황제는 근검절약하여 재물을 아끼고, 백성을 절제 있게 부리며 토목을 일삼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안도 하니 근심도 원망도 없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탐정(探情)보고 하였다.

그 사이는 양차호란에서 무력으로 유린당한 적개심에 다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야만족이라는 편견이 작용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청을 평가하려 들지 않았었는데 반청주전파의 영수였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증손자인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이

제는 정당한 시각으로 청의 실체를 사실대로 보고 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제군관으로 수행했던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광범위한 문화탐방과 예리하고 수준 높은 안목이 이런 대청문화인식의 변화를 촉발해 내지 않았나한다. 김창업의 이번 여행으로 겸재가 국제적인 화가로 명성을 드날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앞서 밝힌 대로다.

현재의 당숙인 통천군수 심정구도 현재 8세 때인 숙종 40년(1714) 갑오 3월 3일에 고성임소에서 돌아가니 그 후 임으로는 심사순의 처조부인 이시징(李蓍徵, 1650~1728)이 부임하는 듯하다. 이해 3월 초부터 금강산 유람 길에 나선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금강산과 고성을 거쳐 4월 18일 통천 읍내에서 자는데 4월 19일에 주수(主粹, 주인수령)인 이시징이 사람을 보내 인사하고 곧 몸소 찾아오며 뒤따라 그 아들이 왔다는 『동유록(東遊錄)』의 기록으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李夏坤, 『頭陀草』제14, 東遊錄)

어떻든 현재가 겸재 문하에 나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의 현재집안은 이렇듯 집권 서인가문의 상층에 속해 기득권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모두 보장받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조부 심익창은 정권의 핵심으로 부상하려다 과욕죄인이 되어 패가망신하고 나서도 그 허망한 꿈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경종 등극 이후에 노·소론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자 노론이 추대한 왕세제를 모살하여 폐립을 자행함으로써 대권을 장악할 흥계를 꾸민다. 전처와 후처의 처가가 소론과 남인의 핵심 가문에 속해 남·소론 인맥과 연계돼 있고 서인 현실론자의 수장이었던 부친 만사 심지원의 후광과 바로 위형인 청평위 심익현 및 숙명공주를 통한 왕실과의 인연이 그 야심에 가능성을 심어 주었다.

그래서 노론이면서도 왕세제 책봉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경종 국구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구(魚有龜, 1675~1740)의 사주 아래 그의 전처 이종 아우인 김일경(金一鏡, 1662~1724)과 결탁해 환관 박상검(朴尙儉, 1702~1722) 등으로 하여금 왕세제 연잉군(延昞君) 음(音, 1694~1776)을 폐위 시해하려다 실패한다. 그러자 김일경으로 하여금 상소케하여 노론 사대신을 비롯한 노론 중진들을 대리청정을 주도한 역적으로 몰아 권좌에서 몰아내고 뒤이어 후처의 일족인 목호룡(睦虎龍)으로 하여금 노론세가 자제들이 불쾌를 도모한다. 고변케 하여 노론 중진가문을 일망타진하다.

그래서 그의 야망이 거의 달성되는 듯 했으나 경종 4년(1724) 갑진 8월 25일 경종이 창경궁 환취정(環翠亭)에서 37세로 돌아가고, 왕세제 연잉군이 8월30일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니 심익창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역적의 괴수로 추락하게 된다. 곧 11월 11일에는 우참찬

까지 초고속 승진해서 대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일경이 제주도 정의(旌義)현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불려와 12월 7일 국왕의 친국을 받고 당고개에서 능지처참되고 그날 목호룡은 맞아죽는다.

영조는 이들의 배후 주모자가 심익창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초(供招, 죄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말)에서 심익창의 죄상이 드러나길 기대했으나 이들이 끝내 입을 다물고 죽었으므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심익창을 역률로 다스릴 수가 없고 심익창을 가혹하게 국문하면 화근이 함원부원군 어유구임이 밝혀질 터이므로 심익창을 몇 차례 심문하여 자연사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영조 원년(1725) 을사 2월 17일에 심익창은 74세로 제 집에서 죽는다. 이때 현재의 나이 19세였다. 심익창이 죽자 우의정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 판의금부사로 위관의 수장이 되어 국청을 차리고 4월7일부터 심익창의 장자 심정옥(沈廷玉, 1676~1738)이 불려다 신임사화의 전말을 실토하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심익창이 김일경, 박상검과 원휘(元徽, ?~1722), 목천임 등과 모역하던 정황과 훈련대장 윤취상(尹就商, ?~1725)과 어영대장 이삼(李森, 1677~1735)등이 동모한 사실을 밝혀낸다.

이해 4월16일에 심익창의 관작을 추탈하고 11월 8일에 윤중(尹拯, 1629~1714)의 재당질인 윤서교(尹恕教, 1677~?)는 경상도 남해에 위리 안치하고 윤중의 제자로 병권을 장악하고 신임사화를 강행해 나간 이삼은 경상도 곤양(昆陽)군에 극변안치하도록 하며 동모한 목천임은 평안도 벽당(碧潼)군에 극변안치하고 심정옥은 경상도 거제부에 감사(減死) 절도(絶島)정배하며 심정신은 경상도 단성(丹城)현에 정배하도록 명한다. 『영조실록』권8. 원년 11월 8일 임인조.)

현재의 부친 심정주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심익창의 역모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듯 심정옥의 공초에도 일체 언급이 없었지만 심익창이 역적괴수로 지목 받고 있었으니 역괴의 자식이라는 죄책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임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경종 원년(1721) 신축 정월에 하양현감으로 부임해 갔던 스승 겸재가 6년 만기를 채우고 영조 2년(1726) 병오 맥추(麥秋) 즉 4월에 상경한다. 51세의 노경에 접어든 겸재가 상경하자 20세 청년으로 성장한 현재는 다시 스승의 사랑에 나가 그림을 배우고 싶었겠지만 그동안 6년에 걸쳐 진행됐던 정국의 소용돌이는 현재로 하여금 겸재택으로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했고 겸재도 사랑에 다시 불려 가르칠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潤松文華 韓國民族美術研究所 轉載

〈다음호부터는 일시 중지〉

# 青松沈氏安孝公宗會

##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

二〇〇九年度 安孝公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日時 : 二〇〇九年 五月二十八日(十時) 端午節祀奉行 · 十一時 總會開催

◇ 場所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四〇一番地 (安孝公墓前·齋室)

### 가 · 二〇〇八年度 會務報告

### 나 · 附議 案件

- 一 · 二〇〇八年度 決算(案) 審議 · 承認의 件
- 二 · 二〇〇八年度 利益剩餘金處分(案) 承認의 件
- 三 · 二〇〇九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承認의 件
- 四 · 二〇〇九年度 議決權 委任 承認의 件

- 宗中財產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 任員認准에 關한 事項
- 宗事와 關聯된 訴訟修訂 事項
- 追加更定豫算(案) 審議 · 議決에 關한 事項
- 其他 主要宗務에 關한 事項

- 五 · 任員選出의 件
- 六 · 當面懸案事項 報告
- 다 · 其他 討議事項

二〇〇九年 五月 日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 연락처 : 〇三一-二五三一八〇六  
二五四-一八〇六六

# 복거한담(卜居閑談) ④ 四世祖 靑城伯公의 일화(逸話)

▷복거: 살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  
▷한담: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

沈德符와 沈連源 재상은 五世孫이 되는 데 재상인 沈連源은 가장 가까웠고 무학국사의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서재로 와서 공부하였는데 과연 모두 과거(科擧)에 합격하였다. 禮曹判書 이계전(李季甸), 李約束(호는 老村), 左議政 洪應, 副提學 李亨元, 司諫 具達忠, 大司成 鄭孝恒, 敎理 元孝廉 등은 모두 여기에서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였다. 沈相國(재상을 말할)의 집안도 또한 대대로 甲科 합격생을 배출하여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孟容(沈連源의 字)도 또한 甲科에 합격하였으며 또한 重試에도 합격하였다. 孟容은 그 앞 세대에서 혹독한 참화를 입었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킬 여가도 없었는데 시랑(侍郎)이 된 뒤에 크게 집안을 다스려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사치한 생활을 한다고 비방하였으나 이것은 무학국사께서 남긴 훈계의 말씀이란 것

을 알지 못한 것이다. 또한 孟容의 비전(秘傳)에 이 말이 자세하게 실려있으며 응당 本家가 있는 것 같으나 알 수는 없다. 그 개요를 孟容한테 들으니 산중일록(山中日錄)의 사실과 서로 같았다. 그런데 과연 대대로 卜居하였는지는 모르겠으며 어떤 문장가가 나왔는지 무학국사가 반드시 한스러워 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즉 우리 회현방(會賢坊) 小公主洞의 집에 대한 앞뒤의 사실이다. 우리 선조 忠惠公(沈連源의 시호)께서 가택을 창건하고 자손들이 대대로 살면서 서로 전해왔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 집터는 무학국사가 잡은 자리라고 하였다. 연대로써 상고해 보면 혹은 의심이 가기도 하였으나 지금의 이 기록으로 보건데 세상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과연 참말로서 옳은 것이었다. 이 기록은 이석희(李錫禧) 선비의 집에서 얻었

데 옛날 문서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白雲(姜暹: 강섬을 말함)선생은 그 從曾孫인 姜玩은 忠惠公과 같은 시대의 사권 벗이다. 벼슬은 府使에 이르렀는데 후손이 없었다. 外孫인 李起野가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姜씨의 서적은 모두 李씨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석희는 즉 이기야의 후손이다. (公洞가승에 記錄)

忠惠公의 옛집은 전석동(磚石洞)에 있었는데 새로 집을 小公主洞에다 지어서 그곳에서 살았다. 때문에 전석동 집은 사위되는 李仁建 현감(縣監)에게 주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남쪽으로 향하는 재상의 집은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전석동의 집이 남향이기 때문에 집을 옮겨 북향집에 살았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건국 초기에 비록 이런 금지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의 집을 옮긴 것이 만약에 조정의 금지령 때문에 하였다면 姜公의 기록이 이처럼 상세한데 어찌 이에 대한 한마디 말이 없는가” 라고 하였다.

그런데 공이 집을 지은 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하였다면 아직 재상이 되지 않았을 때이다. 先祖되는 靑城伯은 무학국사를 따라다니면서 이 터를 정하였으나 時世를 經力하다 보니 집을 지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공께서 제주목사로 있을 때 재목을 모아서 뗏목으로 띄어 한 해를 지나도록 바다에

띄워서 운반하여 집을 지었다면 先祖의 뜻을 따라서 집을 지은 것이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집을 옮기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세상에 전해오는 말도 또한 믿기 어렵다. 재목이 오래도록 잔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왜인들이 도성에 있는 인가를 불살라 버릴 때에 이 집을 여러 차례 불태웠으나 곧 불이 꺼져버리니 왜인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 불사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이 난리를 치렀는데도 완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다. 國史를 살펴 보건대 太祖3年(甲戌: 1394)에 처음으로 한양의 궁전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靑城伯이 그 역사를 감독하였고 무학국사도 또한 그것에 종사하였다. 때문에 무학에게 궁전의 터를 정하라고 하였으니 乙亥年(1534)에 있었던 일인 것 같다. 中宗29年(甲午: 1534)에 공께서 金安老의 마음을 거역한 것이 되어 제주목사로 나갔다가 丁酉年(1537)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 뒤에 집을 세웠는데 歲次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정유년 이후에 있었던 일로 생각된다.

太祖乙亥年(1395)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140餘年이 된다.

姜玩 撰(강완이 지음)에서 발취  
- 文化部 -  
< 끝 >

# 九世祖 忠惠公(諱: 連源) 『記錄』모음 - ① (奎章閣 所藏 文獻)

景福宮 대궐을 創設할 때에 청성백 심덕부(靑城伯 沈德符)는 그 役事를 감독하였는데 그 景福宮을 重修할 때가 되어서는 忠惠公(沈連源)이 또한 제조(提調)로서 그 일을 감독하였으니 또한 특이한 일이다.

明宗朝 癸丑(1553)년에 경복궁을 중수하여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沈連源은 領議政의 자격으로, 예조판서 윤개(禮曹判書 尹澗)는 도감제조(都監提調)로서 그 곳으로 가서 자세히 그 외각(外閣)의 창호(窓戶)를 살펴보니 모두 板子에 주홍색, 동록(銅綠) 등의 진채(眞彩)색을 사용하였으므로 윤개가 크게 노하여 곧 그를 잡아들여 조치를 취하였다. 이인건(李仁建)의 목에 형틀을 씌우고 모자를 벗기고서 책망하며 말하기를 “대궐 안의 침실을 진한 채색으로 안을 장식했는데 무엇 때문에 한낱 미관(微官)이 감히 아첨으로 칭찬을 들으려고 법도를 이와 같이 훼손하였는가? 마땅히 논의하여서 제서(制書)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말의 기세가 발발(勃勃)하였다.

이인건은 바로 영의정 심연원의 사위이다. 심연원이 듣고도 못들은 척 하다가 모래땅에서 애절하고 괴로운 말로서 그 곤욕을 치른 뒤에 심연원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내 어리석은 사위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 나라의 제도로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스스

로 망령된 짓을 하는 대로 빠졌으니 이 일은 사정을 봐줄 일이 않은 것 같으나 임금의 명령의 제서(制書)를 훼손한 법률로 다스리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을 생각해서라도 추고(推考: 추측하여 생각함)를 중지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

다”라고 하였다. [기제잡기(寄齋雜記)에서] ※ 寄齋雜記 = 朝鮮時代 初期부터 明宗에 이르는 歷代의 野史. 仁祖대의 文臣寄齋(朴東亮)가 지은 책.

公(連源)의 병환이 조금 차도가 있을 때에三公인 상진(尙震) 윤개(尹澗) 윤원형(尹元衡) 등이 같이 공의 집을 방문하였다. 공께서 상진과 윤개 두 재상은 들어오시라고 하고 윤원형은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평소에 윤원형과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마음으로 매우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죽으려 할 때에 이르러서 어찌 반드시 또 윤원형을 보아서 외부의 일로부터 도리어 얼굴빛이 土色과 같이 검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도재수록(陶齋隨錄)에서] ※ 陶齋 = 朝鮮 仁祖때 尹 旰의 호. 人物, 歷史, 地理, 文物, 등을 수록한 책.

沈連源이 領相이 되었는데 병든 몸으로 자제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대신이 되어서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임금이 병문안을 하시

면 다만 그 사은(謝恩)에 감사 드려 祝手를 올리고 다시 시국의 정사에 대하여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언급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정신이 아직 혼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을 여섯 조목으로 하여 간곡하게 상소를 올리려 한다. 여섯 조목은

- ①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근학(勤學).
- ② 충간 하는 말을 따르라는 종간(從諫).
- ③ 어진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친현(親賢).
- ④ 아첨하는 말을 멀리해야 된다는 원병(遠佞).
- ⑤ 이재민 등에 금품을 주어 구제하는恤民(恤民).
- ⑥ 상을 내릴 때 삼가야 된다는 신상(慎賞) 등이 그것이다”고 하였다.

[동각잡기(東閣雜記)에서] ※ 동각잡기 = 明宗, 宣祖때의 李廷馨(이정형)이 지은 책이름. 고려 말기에 서 宣祖때까지 政治와 名臣등에 관하여 기록한 책.

明宗朝에 조정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大臣 沈連源과 知事인 송강(宋崗) 조사수(趙士秀) 등의 여러 사람들이 임금을 모시고 강연을 파하고 나서 시국의 정치를 논하였다. 송강이 나아가 말하기를 “근래에 사치하는 풍습이 크게 펼쳐서 대신이 경계할 줄을 모르고 첩을 두고 살립하니 매우 제

도에 지나침이 있으니 그 다음으로 징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大臣은 공(심연원)을 가리킨 것임으로 땀이 두꺼운 갑옷에 스며들었으며 머리를 숙이고 죄를 기다렸다. 송강의 강직함은 모든 무리에서 뛰어났지만 공의 직언을 용납하는 도량도 넓어서 마음에 언짢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무릇 전상(銓相: 吏曹判書)을 천거할 때에 반드시 松崗 趙士秀를 천거하였으니 大體(행위의 대강)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재수록(陶齋隨錄)에서] ※ 陶齋 = 朝鮮 仁祖때 尹 旰의 호. 人物, 歷史, 地理, 文物, 등을 수록한 책.

- 32 -  
< 다음호에 계속 >

##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會旗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총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會旗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 13世祖 諱 渙公 壬辰倭亂 鬪爭記 - 2

## 2. 처절했던 最後의 激戰地 島山城戰鬪

丁酉年(1597) 明나라의 使臣 沈惟敬과 倭敵間의 和議會談이 결렬되자 왜적들이 다시 14萬 大軍을 이끌고 再侵하니 이것이 丁酉再亂이다. 이해 7月 28日 倭將의 우키다, 고니시 등을 선봉장으로 하여 경상도 전라도 일대는 점령하였으나 朝·明 聯合軍이 일제히 반격하자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왜적 右軍의 선봉장 加藤은 太田一吉등 副將으로 울산에 성을 축성케 하였으며 성이 완성 후에는 加藤清正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島山城은 加藤清正이 설계하고 부장등 16,000여명이 先야행장(淺野幸長), 太田一吉의 감독으로 시작이 되었다. 왜적은 이 책을 築城하는데 길이가 1,300m요 높이는 10~15m이고 여기에 大小의 성노(城槽) 12개를 만들고 남쪽을 제외한 三面에 土堤를 둘러쌓고 다시 그 위에는 木柵(木柵)을 만들었으며 길이가 2,400m나 되었다.

그리고 木柵은 大柵으로 3重으로 들렀고 성벽에는 鐵砲 300정을 설치하였다. 왜병들은 이와 같이 크고 작은 城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本城의 북쪽 낮은 곳은 제2本城을, 제2本城 西北쪽 突出한 곳은 제3本城을 만들었고 또 제2本城의 東北쪽 突角지점에서 東쪽으로 연속한 細長 長堤도 쌓으니 그 규모가 위압적이다

선조31年 12월에 이르러 明軍大將 麻貴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하였다. 이들 麻貴와 揚鎬(양호)의 4萬餘 軍隊는 21日 聞慶새재를 넘어 安東을 거쳐 慶州까지 進出하였다. 이때 島山城공략에 동원된 東征軍은 경리 양호이하 4萬여명과 朝鮮軍도원수(朝鮮軍都元帥) 권울(權慄)장군이 거느리는 1萬여명으로 5萬여명의 大軍이 동원되었다.

이 때 贊劃인 渙公께서는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明將 麻貴에 가담해서 西生浦의 敵軍과 싸우고 있을 때 여러 지방의 義士들이 또한 많이 모여들어 함께 싸우니 全軍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이때 다시 島

山城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산성은 새로 쌓은 城이라 워낙 높고 험하여 우리 군은 방패 등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성 밑으로 육박하여 공략하였으나 비 오듯 퍼붓는 적의 銃砲와 火砲등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사상자만 수없이 발생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이때 明軍의 死傷者의 실태를 살펴보면

一次싸움에서만 : 死亡 1,400여명 負傷 3000여명(연려실기 記錄에서). 死亡 700여명 부상 3,000여명(李德馨이 조정에 올린 啓狀에서). 死亡 800여명 부상 3,000여명(宣祖實錄에서)

安東으로 출격한 義兵의 부상과 사망이 1千여명 이나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朝鮮軍의 사상자를 합하면 蔚山에서 1次戰鬪에서만 死傷者가 六千餘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 이 島山城戰鬪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케 한다.

蔚山 島山城전투에서 彼我間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聯合軍(明軍, 官軍, 義軍)은 宣祖30年 12月 20日 慶州府城에 六萬의 大軍이 集結하여 22日부터 다시 島山城 攻城戰을 계속하였으나 또다시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니 그 참상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宣祖31年 9月 2次 攻城戰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倭軍은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또 오랜 싸움에서 지쳐 이 이상 더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니 처절했던 島山城戰鬪는 이로서 끝이 났으며 이때 南海에서는 李舜臣將軍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宣祖31年(1598) 11月 18日 豐臣秀吉이 病死하고 그의 命에 의하여 귀국하던 왜병들을 李舜臣將軍이 퇴로를 차단하고 名將 陣璘과 함께 陸海戰으로 협공하여 완전 섬멸하니 敵船 500隻중에 살아서 돌아간 兵船이 50餘隻이라 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노량해전(露梁海戰)이다. 李舜臣將軍은 不運하게도 이 전투에서 장렬히 殉國하였으나 길고 고통스러웠던 임진왜란 7년이 이로서 끝이 난 것이다.

결국 7年間의 이 전투를 통해보면 權慄은 幸州山城에서, 李舜臣은 南海開山섬 전

투에서 金時敏은 晋州에서 大勝하니 이것이 三大捷이며 申砬과 元均, 李舜臣장군등 많은 名將들이 순국하고, 趙憲, 高敬命, 金千鎰, 郭再祐등 많은 義兵將등이 또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순국하였다.

7年 間의 전투를 살펴보면 蔚山에서만 보더라도 第一 激戰地였던 島山倭城의 전투를 비롯하여 西生浦戰鬪, 孔巖戰鬪, 達峴戰鬪, 汶川戰鬪, 獅子坪戰鬪, 開雲浦戰鬪, 太和江口戰鬪 등 그외에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어갔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참혹했던 7年 間의 전쟁으로 인해 피폐할 대로 피폐하여 졌는데 이 임진왜란의 흔적이 가시기도 전에 1627年 後金(後에 淸나라)이 쳐들어와 丁卯胡亂(兄弟國을 맺음)이 일어났고 또 20년도 안되어 淸國의 再侵略으로 丙子胡亂을 일으키고 다시 臣下國으로 만들고 돌아가니 그 국치(國恥)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는 극도로 빈약하게 되었으니 한 나라의 운명이 風前燈火 格이다.

明나라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明나라는 (明國은 壬辰亂 이전부터 末期현상이 있었음) 壬辰亂을 맞아 明將 李如松이 四萬軍隊를 이끌고 들어와 여러 해 동안 격전에 격전을 거듭하니 그로 인해 미구에는 국력이 소진되었다. 결국 1644年 淸國에 멸망하니 우리나라보다도 더 참혹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임진란이 끝나고 渙公은 창검을 거둔 뒤에는 입으로 戰功을 말하지 아니하고 麗泉의 옛 농장에 은신하였다. 하루는 동화당主人 李景淵을 심방하니 박봉수, 박응정, 장칭, 김은방, 이한남, 이덕수가 모두 모여서 서로 공의 노래를 화창하기를 “밝은 달을 읊음이어 주인 초당이 한결 밝다.

세상풍진이 꿈같음이어 이 생의 하루를 즐겨 하노라.

내 노래에 네가 춤춤이요 어느덧 머리털이 서리 발 같다.

朝廷에서 東萊, 機張, 梁山教授를 삼았으나 나가지 아니했고,

蔚山教授를 除授하니 오직 나라의 원수들을 처치하지 못함을 한되게 여기고 그 신세의 걱정은 개념 하지 아니 했으니 이것만 보아도 족히 공을 짐작할 수 있다” 하였다.

公은 壬辰亂의 倡義使로 蔚山忠義祠에



配享되어 계신데 島山城戰鬪에서 殉節하신 岳隱公派 11世祖 訓練院奉事 碧節公 휘淸公과 함께 나란히 配享되어 계시다.

公은 配位 谷山韓氏 사이에서 一男을 두시니 繼善公이시다.

- 문화부 - <끝>

◎ 忠義祠는 2000年 6月 5일에 垜地面積 6,013m<sup>2</sup>에 建物이 11棟으로 지어졌으며 祠堂에는 功臣과 倡義使 239位의 神位를 모셨다.

※ 忠義祠는 3年任期로 理事長을 選任하는데 現在는 蔚山の 仁壽府尹公派 11世祖 內禁衛公 宗會長이신 沈應輔씨가「蔚山壬亂義士崇慕會. 忠義祠」理事長으로 在職中이시다.

**清州·淸原宗會 任員名單**

理 監 總 副 會	會 長
事 務 長	成 輔
事 務 長	相 昊
事 務 長	中 來
事 務 長	載 龍
光 載 弘 悌 鍾 揆	載 輔
輔 元 變 澤 赫 完	載 輔
惠 載 好 星 義 輔	載 輔
明 載 仁 閔 九	載 輔
彦 福 植 九	載 輔
載 載 琦 變	載 輔
坤 駟 變	載 輔
載 載 元 變	載 輔
玆 國 變	載 輔
亨 載 良 變	載 輔
輔 錫 變	載 輔

**春川宗會 任員名單**

理 監 總 副 會	會 長
事 務 長	仁 燮
事 務 長	相 浩
事 務 長	忠 植
事 務 長	揆 鎮
事 務 長	晞 燮
事 務 長	陽 燮
滿 愚 載 載 相 洪 永 相 浩 忠 揆 晞 燮 陽	燮
用 大 鎬 星 汶 萬 尤 燮	燮
成 永 應 載 萬 完 燮	燮
起 壽 植 卿 澤 燮	燮
爽 揆 昶 愚 完 燮	燮
順 鎬 欽 仁 燮	燮
仁 永 大 載 重 燮	燮
淑 泰 欽 學 燮	燮
順 昶 愚 載 載 燮	燮
子 雨 敦 元 燮	燮
載 昌 愚 載 載 燮	燮
淵 用 錫 俊 鈞	燮

**祝**

**변호사 심갑보 법률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 화산빌딩 4층  
TEL (031) 214-7400 FAX: 031-214-7403

▶ 약력

- 1992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장판사
- 2009년 2월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장판사 명예퇴임

宗 事 消 息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寒食節祀 奉行



始祖 配位 4월 5일(寒食)  
 初獻: 敏燮(원주) 配位: 成輔(경주)  
 亞獻: 炅燮(함안) 相郁(철원)  
 終獻: 英求(울산) 相郁(철원)  
 大祝: 華燮 執禮: 琬澤  
 執事: 相七 相澈 相守 相國 相法 秀燮 應輔 愚夏  
 ▶ 獻誠金  
 都摠制公宗會: 200,000 鐵原宗會: 1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清州宗會: 100,000  
 春川信川公宗會: 200,000 咸安宗會: 2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100,000 盈德宗會: 100,000  
 ▷ 中臺山所 春享奉行 4월 5일(寒食)  
 獻官: 相郁(鐵原宗會 會長)

二世祖 閻門祗侯公(諱:淵) 春享奉行



閻門祗侯公 配位 (음 3월 11일)  
 初獻: 相龍(안효공 부회장) 配位: 應植(울산)  
 亞獻: 相郁(철원총회장) 相和(분당)  
 終獻: 良燮(김포)  
 大祝: 相直(인천) 執禮: 相稷  
 執事: 載求 載澈 仁求 昌燮 相國 正秀 尙道  
 ▶ 獻誠金  
 都摠制公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300,000 鐵原宗會: 100,000  
 金浦 僉正公宗會: 200,000 全北青松會: 100,000

三世祖 青華府院君(諱:龍) 春享奉行



青華府院君 配位 (음 3월 13일)  
 初獻: 敏燮 贊求  
 亞獻: 修吉 基對  
 終獻: 玄根 相和  
 大祝: 相華 執禮: 相稷 執事: 相旭 虎燮  
 ▶ 獻誠金  
 都摠制公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蔚山 青年會: 100,000  
 原州·橫城地域宗會: 100,000

四世祖 青城伯(諱:德符) 春享奉行



青城伯 配位 (음 4월 15일)  
 初獻: 斗燮 完求  
 亞獻: 在安 相大  
 終獻: 相基 應輔  
 大祝: 相直 執禮: 相稷 執事: 載求 載澈  
 ▶ 獻誠金  
 都摠制公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完求(蔚山前市長): 3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100,000

青城伯 初配位(清州宋氏) 春享奉行



清州宋氏 都摠制公 (음 4월 17일)  
 初獻: 宜洛 相殷  
 亞獻: 逸燮 載赫  
 終獻: 載龍 尙道  
 大祝: 相昊 執禮: 相稷 執事: 相中 載澈 尙道  
 ▶ 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都摠制公宗會: 200,000  
 ▶ 省墓時  
 華城市 靖夷公宗會 會長 상돈: 200,000

四世祖 岳隱公(諱:元符) 春享奉行



岳隱公 令同正公 石村公 (음 3월 25일)  
 初獻: 榮燮 相許 載鑣  
 亞獻: 宇永 鍾赫 相海 相國  
 終獻: 沈澤 洙鍾 聖輔 壽澤 寅澤 相學  
 祝官: 明澤 壽哲 琬澤 許  
 執禮: 相九  
 執事: 弘燮 俊現 筍澤 鎬燮 揆震 完燮 相守 圭煥 田澤

五世祖 安孝公(諱:溫) 寒食節祀

4월 5일(寒食)

初獻: 魚澤 亞獻: 勳輔 終獻: 懿根  
 大祝: 洪燮 執禮: 相稷 執事: 彦村 應植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春享奉行

(음 3월 14일)



初獻: 相龍 亞獻: 政燮 終獻: 求亨  
 大祝: 光澤 執禮: 載玉 執事: 相旭 虎燮 載澈 載殷

六世祖 良惠公(諱:石雋) 春享奉行

(음 3월 20일)



良惠公 配位 滄洲公  
 初獻: 晶求 完求 璋燮  
 亞獻: 求亨 相大 榮燮  
 終獻: 愚夏 仁輔 仁燮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鍾赫 載澈 愚夏 昌輔  
 ▶ 獻誠金  
 完求(前 蔚山市長) 300,000 璋燮: 500,000

七世祖 忘世亭公(諱:璿) 春享奉行



忘世亭公 配位 (음 3월 23일)  
 初獻: 晶求 應輔  
 亞獻: 春植 大植  
 終獻: 洪燮 愚夏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鍾赫 載澈 愚夏 昌輔  
 ▶ 獻誠金  
 蔚山內禁衛公宗會 會長 應輔: 200,000

### 世宗大王 忌辰祭 奉行

4월 8일



亞獻官 : 沈容圭(大宗會 理事)

### 昭憲王后 忌辰祭 奉行

4월 28일



亞獻官 : 相弘(大宗會 理事)  
參班員 : 安孝公宗會 30명, 青松岳隱公宗會 40명, 金浦 14명, 洪燮 百燮 載烈 載澈 愚夏 勳輔 種輔 外(100여명)

### 仁順王后 忌辰祭 奉行

4월 26일 (4월 넷째 일요일)



亞獻官 : 相厚(大宗會 理事)  
參班員 : 斗燮(회장) 永澤 相直 相萬 相弘 相勳 昌燮 龍燮 百燮 胤燮 洪燮 載澈 載烈 允輔 勳輔 愚夏 仁輔 元輔 允輔 左輔(20명)

### 端懿王后 忌辰祭 奉行

3월 22일(3월 넷째일요일)



亞獻官 : 相贊(咸川府使公宗會 會長)  
參班員 : 斗燮(회장) 相弘 昌燮 洪燮 奉燮 三圭 仁輔, 昌輔(外 5名)

### 宗廟大祭 奉行 5월 3일 (일요일)



正殿 亞獻官 : 相烈 (내자시판관공과 회장)



가 행사를 주관하여 현재는 매년 양력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봉행되고 있다.

#### ■ 宗廟祭禮 (중요무형문화재 제 56호)

종묘제례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유형과 무형의 제례봉행에 함께 참관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온 유례가 드문 문화유산이다. 조선 왕조 역대 임금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제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조선조에는 정기적으로 4계절과 납일(臘日)에 올리는 5대향, 수시로 올리는 천신제(薦新祭), 영녕전과 사직에서 봄, 가을 및 납일에 올리는 3대향이 있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69년부터 종묘제례보존회(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제향 행사는 크게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임금이 경복궁에서 출발하여 종묘에 이르러 재계하는 절차인 어가행렬과 제례봉행(제례악, 일무, 포함)으로 나누어져 있다. 종묘제례는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6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유네스코「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되었다.

우리 大宗會에서도今年에도 亞獻官(相烈 : 7世祖 判官公派 會長)이 배정되었으며, 參班員은 다음과 같다.

▷參班員 : 斗燮(會長) 相直 百燮 洪燮 進燮 載求 載烈 容圭 載澈 勳輔 種福

### 世宗大王 612돌 崇慕大祭 奉行 (5월 15일)



계유산으로 등록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모든 장면을 녹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행사로 먼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고 世祖께서 정리하였다는 고태평과 정대업의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을 연주하였는데 이 음률이 장엄하고 돋보여 한국음계에 완벽에 가까운 악보의 구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제례악에 맞추어 中國의 아악에 쓰이던 팔일무(八佾舞)를 곁드려 제례악을 더욱 장엄하게 하였다. 初獻官에는 郡守가 亞獻官은 李氏門中에서 또 終獻官에는 府院君 宅인 청송심씨문중에 配定하였는데 약 300여 명의 內·外賓이 참여한 가운데 근엄하게 奉行되었다.

서기 2009년 5월 15일은 世宗大王의 612돌 誕辰日로 世宗大王 陵에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位前에 함께 탄신 崇慕祭를 봉행하였다.

誕辰祭는 해마다 봉행하여 오던 것이나今年에는 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行事를 곁드려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금년 6월에는 朝鮮王朝의 40位 王陵이 유네스코에 세

는 府院君 宅인 청송심씨문중에 配定하였는데 약 300여 명의 內·外賓이 참여한 가운데 근엄하게 奉行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世界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되는 시점이어서 文化部長官을 비롯하여 여주 국회의원 군수 각계 공무원의장 문화재청 각계인사와 많은 학교 校長 등이 참여한 것이 행사를 돋보이게 하였다.

### 淑容沈氏 忌辰祭 奉行

4월 19일(4월 셋째 일요일)



亞獻官 : 相弘(大宗會 理事)  
參班員 : 永澤 斗燮 百燮 洪燮 載澈 載烈 種福

### 성산포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화산터 돌을 굴러 뚝방을 얹어놓고  
육지를 그리다가 풍지처럼 떨던 가난  
바람이 편 조밥 먹고 우도 툇국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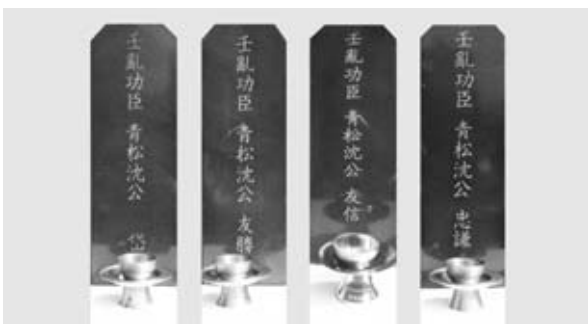
전설을 엮어다가 값 묻는 이 선달에  
고깃배는 이어도를 시나브로 출렁이고  
갯마을 비바리네를 보고 지고 옛 생각에

# 壬亂功臣 403位 417週期 追慕大祭 奉行

(5월 7일)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47-11



沈 岱(扈聖功臣) 沈友勝(扈聖功臣)  
沈友信(宣武原從功臣) 沈忠謙(扈聖功臣)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여언 417주기를 맞이하여 당시의 백천간두에선 나라를 구하신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진중 보국의 충의정신을 선양하고 호국대제를 공신배향門中 지역유림 150여명의 참사자가 참여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대제를 봉행하였다.

우리門中 功臣으로 祭享奉行을 받으시는 先賢은 네 분으로 大宗會에서 追慕祭에 參與하였다.

• 參班員 : 載烈 相厚 洪燮 容圭 愚夏 鍾赫 仁輔

## 青松沈氏 釜山宗會 定期總會

日時 : 2009年 6月 21日 午前 10時

場所 : 慶南工高 體育館

## 墓苑造成 告由祭 奉行

### 七世祖 內資寺判官公(諱: 潏) 11世祖 督戰督運使(諱: 宗明)



內資寺 判官公	督戰督運使
初獻 : 相烈 判官公과 會長	相烈
亞獻 : 元輔 김포(신천공파)	相厚 안산(호창공파)
終獻 : 載勳 이경공과 總무	愚夏 (인수부윤공파)
大祝 : 相華 (일산)	執禮 : 洪燮 (대종회 이사)
執事 : 재철 (서울) 奉燮(파주)	
▶ 獻誠金	
永澤(신천공과종회 회장) : 100,000	
龍燮(정랑공파) : 50,000	
載勳(이경공과종중 총무) : 100,000	

13世祖 掌樂院正(휘: 儒珍): 同日 告由祭

14世祖 左承旨 慶基殿參奉(휘: 櫻): 同日 告由祭

青松沈氏 11世祖 휘 : 宗명 호종공신 독전독운사 증

병조참의께서 1592년 5월 임진왜란 중 임진강에서 왜구와 싸움에서 전사하시어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우랑동 巳座原에 장사(옷과 칼을 장사지냄) 지냈는데 이후 공의 사적(事蹟)이 없어 보첩(譜牒)에만 간략한 기록만이 있어 12代孫 相直은 공의 사적을 찾던 중 서울 대학교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번호 4776호 제헌집전에 11世祖 독전독운사 증 병조참의 沈公 휘 : 宗명의 행장을 찾아 공의 墓前에 묘갈과 도난당한 동자석, 장명 등 망주석과, 13世祖 장락원정(휘 : 유진), 14世祖 좌승지 경기전참봉(휘 : 직)에도 묘갈, 상석, 망주석을謹立하고 7世祖 내자시판관공 휘 원(諱 : 潏) 墓所에 사초정화(莎草淨化)하고 고유제(告由祭)를 봉행하다.

12代孫 相直 公

七世祖 內資寺判官公派 宗會

## 總會 贊助金

安孝公宗會	500,000	完求(蔚山 前 市長)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仁輔(영동)	100,000
仁川宗會	300,000	相滿(파주)	100,000
金浦 信川公宗會	200,000	相奵(前 國會議員)	100,000
金浦宗會	100,000	相華(일산)	50,000
谷城宗會	100,000	逸燮(대전)	100,000
春川 신천공 相汶	100,000	相植(순천 판사공)	100,000
南서울종회	100,000	魚澤(용산)	100,000
동두천종회	200,000	仁壽府尹公宗會	300,000
夷敬公宗회장元燮	100,000		

## ‘인터넷종친회’ 임원개편

모두가 함께하는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 로 탈바꿈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는 지난 2000년도에 MSN 사이트에 개설하여 우리 일가회원 수가 1천명이 넘는 인터넷지역의 유일한 종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2009년 2월에 폐쇄한다는 MSN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daum 카페로 우리 인터넷종친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ungSongShim/>  
⇒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

2009년 5월 15일 현재 회원은 132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종친회 회장인 제가 많이 아픕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섯 분을 운영이사로 추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 로 탈바꿈하고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한 것입니다.

- 윤근(현 인터넷종친회 부회장)  
⇒ 사진과 인터넷 전문가  
(홈페이지 <http://www.simnet.pe.kr>)
- 재일(현 인터넷종친회 부회장)  
⇒ 한국보훈공단 근무
- 정진(현 인터넷종친회 이사)  
⇒ 11세조 부사공(휘 : 원해) 할아버지[부사공파] 15대손

• 총석(운영이사로 영입)  
⇒ 심총석 약용식물 관리사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ds31sr>)

• 종권(운영이사로 영입)  
⇒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 기(旗)를 디자인 해주시고 청송심씨종보를 제작해 주고 있음.(광고·인쇄업)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일반 파종회나 지역종회와는 달리 문중 일가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회장인 너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한 분의 운영이사가 열성을 보이면 ‘청송인터넷종친회’는 영원무궁토록 발전해 가리라 믿습니다.

2009년 5월 15일 새벽에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 회장 沈 忠 燮

人事

학식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가송무과  
 지환 : 법무부 공익법무관 구조담당 광주지부  
 정섭 : 한진중공업 한진도시가스 대표  
 동훈 : 대구은행 광장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인보 : 울산대학교 수학교수  
 규화 : 우정사업본부 서기관 충청체신청 사업지원국장  
 옥자 : 알리안츠생명 청평지점장  
 상희 : 특허청 화학공학심사국 생명공학 심사과 서기관  
 익섭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 퍼럼운영위원장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섭 : 서울신문 감사부 감사부장  
 흥방 : 보훈병원장 취임 2008년 12월  
 영만 : 산림청 서기관 치산복원 과장  
 載圭 : 농림수산 식품부 과장 국립종자원  
 찬성 : 건국대병원 소화기병 센터장  
 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한일역사공동 연구위원  
 상진 : 경기대 교학1처장  
 星求 : 成均館 聖域守護管理委員會 副委員長  
 기보 : KBS 아트비전 장식팀장  
 두보 : 국토해양부 과장 담당관 수원국토관리 사무소장  
 수화 : 연합뉴스 부산취재 본부장

理事會費

載集	50,000	2009	威悅 有司
上銀	50,000	2009	金浦
秀永	50,000	2007	全州
載萬	50,000	2008	신림동
鍾德	50,000	2008	光州
亨求	50,000	2009	화곡동
鎭奎	50,000	2008	경남고성
載烈	50,000	2009	大宗會
鍾赫	50,000	2009	大宗會
種福	50,000	2009	大宗會
載緒	50,000	2009	一山
載成	50,000	2009	一山
庚周	300,000	2009	副會長
相殷	300,000	2009	副會長
相郁	300,000	2009	副會長
敏燮	50,000	2009	原州
玄根	50,000	2009	大田
映求	50,000	2009	진관동
觀燮	50,000	2009	光州
相龍	50,000	2009	水原
相國	50,000	2009	青松
大植	50,000	2009	仁川
正輔	50,000	2009	原州
相圭	50,000	2009	仁川
在安	50,000	2009	仁川
晟求	50,000	2009	春川
行燮	50,000	2009	長城
應夏	50,000	2009	고양
宗玉	50,000	2009	龍仁
錫鎔	50,000	2009	동탄
應茂	50,000	2009	仁川
相夏	50,000	2009	鐵原
相甲	50,000	2009	鐵原
相汶	50,000	2009	春川
載洪	50,000	2009	青松
佶燮	50,000	2009	益山
湖澤	50,000	2009	大邱
允澤	50,000	2009	牙山
相默	50,000	2009	麻浦
允輔	50,000	2009	金浦
相弘	50,000	2009	金浦

載潤	50,000	2009	하남
逸燮	50,000	2009	大田
泰燮	50,000	2009	신월동
成輔	50,000	2009	淸州
相昊	50,000	2009	淸州
載龍	50,000	2009	淸州
尙道	50,000	2009	全州
揆璨	50,000	2008	大田
護雄	50,000	2010	大邱
相根	50,000	2009	全州
相贊	50,000	2009	양평
昌輔	50,000	2009	양평
良燮	50,000	2009	漣川
求亨	50,000	2009	수지
一用	50,000	2009	安城
政燮	50,000	2009	安城
相勛	50,000	2009	여의도
仲根	50,000	2009	牙山
相泳	50,000	2009	益山
仁求	50,000	2009	益山
勇鎭	100,000	2008~2009	신길동
德求	100,000	2008~2009	仁川
載浩	50,000	2009	安東
鍾洪	50,000	2009	富川
正植	50,000	2009	光州
容圭	50,000	2009	회현동
載根	50,000	2009	醴泉
載善	50,000	2009	公州
載警	50,000	2009	仁川
花鮮	50,000	2009	醴泉
相億	50,000	2009	水原
鍾默	50,000	2009	群山
載殷	100,000	2008~2009	江陵
應輔	50,000	2009	蔚山
英求	50,000	2009	蔚山
隆求	50,000	2009	蔚山
壽輔	50,000	2009	蔚山
烜燮	50,000	2009	大邱
愚龍	50,000	2009	麻浦
弘輔	50,000	2009	晉州
龍澤	50,000	2009	城南
泳淳	50,000	2009	城南
相振	50,000	2009	仁川
相高	50,000	2009	鎭川
載德	50,000	2009	鎭川
中鎭	50,000	2009	忠州
星求	50,000	2009	구기동
光澤	50,000	2009	安城
載勳	50,000	2009	金浦

相根	50,000	전주
덕섭	30,000	김포
대섭	30,000	태백
상덕	30,000	흑석동
재환	50,000	일산
상만	50,000	전주
대규	50,000	고령
載善	50,000	공주
대규	50,000	성주
載警	50,000	인천
규택	30,000	청송
우성	50,000	종로
우만	30,000	천호동
鍾默	30,000	군산
운섭	50,000	대조동
載殷	30,000	강릉
奉燮	30,000	군포
相昇	50,000	수원
淸澤	20,000	춘천
政燮	30,000	석관동
愚瓚	30,000	하남시
두용	10,000	도봉동
광부	100,000	종암동
정일	100,000	
一山 (법곳종중)	00,000	
弘輔 (진주종회)	200,000	
相烈 (판관공회장)	100,000	
信川公 (현공종중)	100,000	
載勳 (夷敬公總務)	50,000	

**古書 贈물에 감사합니다**

1. 經國大典 2. 大典會通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查課編)  
 제공처 : 7世祖 夷敬公 宗中  
 文義公派 相英  
 자료복사(출처 : 國家記錄院)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종보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청송심씨대종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 2008년 6월 5일자로 신규 개설

청송심씨대종회  
 전화 : (02)2267-7857

誠金 感謝합니다

- 宗報贊助 -

재영	50,000	청송종합물류
胤燮	50,000	김포
德燮	50,000	김포
〇〇	20,000	월계동
昌柱	50,000	춘천(변호사)
炯柱	30,000	춘천(건축사)
範柱	30,000	춘천(기술사)
淸州宗會	200,000	
鐵原宗會	200,000	
春川宗會	200,000	
仁川宗會	200,000	
安城宗會	200,000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燾	010-6889-7733
			能光	010-9236-2331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載集	011-676-1150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館長	載 洪		054-874-3400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學		010-7136-3572
淸 州	淸 주 회 관			043-286-7857